

지역 소식



자라나는 세대: 친구와 서로 강화하는 청소년들

지역 우선순위

개인/가족

복음에서 기쁨을 찾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계획의 각 요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복음에서 더 큰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해 준비한다.

단위 조직

1. **자라나는 세대:**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한다—회원과 비회원 모두.
2. **실질 성장:** 우리는 회원의 개종을 심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한다.
3. **자립:**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영적 및 현세적 자립을 강화한다.

“**친**구는 선생님과 같아요. 절 가르쳐주니까요. 이 친구들에게 많이 배우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의지가 돼요. 친구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양 와드 예비 선교사 박인수 형제의 말이다. 안양 와드의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정재훈, 설진영, 박인수, 안광웅, 김태훈 형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신입 청년 독신들이다. 이 다섯 명의 형제들은 청소년 시기를 한 와드에서 함께 보냈고,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하고 최근 전임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2017년 1월 말과 2월 초에 모두 선교 사업을 떠날 예정이다.

2017년 지역 우선순위를 통해, 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회원은 회원과 비회원 구분 없이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도록 권고받았다. 자라나는 세대의 부모님, 청소년 지도자들이 이러한

권고에 순종할 뿐 아니라, 강화되고 있는 자라나는 세대 자신도, 친구와 후배들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안양 와드의 이 다섯 형제들이 그 예다.

중학교 3학년 때 개종한 김태훈 형제는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친구들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정말 좋아하게 됐고 제게도 복음을 나눌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곁에 있던 이 친구들이 다들 선교 사업을 갈 거라고 했고, 저도



모두에게 돌아오는 축복:

자라나는 세대들이 밀물이 밀어닥치듯 우리 주변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앞선 세대인 우리가 그 차오르는 물결 위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론 신권 형제들이 준비되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돌아옵니다. 또한 아론 신권 형제들이 섬기게 될 그들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준비하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60쪽.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는 날을 기다리며, 이 다섯 명의 예비 선교사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함께 공부하며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때로 복음 생활에 의문이 생길 때,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서로에게 답을 주며,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들은 또한, 친구들이 자신을 위해 했던 노력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설진영 형제는, 잠깐 교회에 소홀했던 시기에 다른 네 친구가 자신을 방문했던 일을 회상한다. “갑자기 몰려와서 선물을 주고 갔어요. 부담도 느껴지만 솔직히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죠.” 박인수 형제는 김태훈

형제에게 받은 좋은 영향에 대해 전한다. “개종자인 태훈이가 지닌 신앙의 태도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돼요. 복음에 충실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제가 적당히 좋은 것을 추구할 때 태훈이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해요.”

이 다섯 명의 예비 선교사는, 청소년들의 큰 형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이들은 언행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한다. 정재훈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여러 와드가 모여 안양 와드로 통합된 지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청소년 중 가장 큰 형인 저희 다섯 명이 한꺼번에 선교사로 나가면 청소년 동생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돼요. 우리도 이렇게 단합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도움이

필요했어요. 청소년 후배들을 강화하고 단합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



사진: 다섯 예비 선교사들이 지난 11월에 안양 와드에 참여했을 때의 모습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교사 평의회 경험담: 세 가지 축복

선지자들에게서 새로운 지침과 훈련 자료가 올 때, 한국 성도들은 즉시 이에 순종하여 새로운 것을 습득하고 실행한다. 교사 평의회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복음을 가르치려 노력하며 교사 평의회를 열고 있는 회원들의 경험담을 소개한다.

지난 2016년 5월,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소책자 배포와



함께 **교사 평의회**가 시작되었다. 와드와 지부 등 한국 전역의 여러 단위 조직은 매달 교사 평의회를 열고 있다.

교사 평의회 모임은 일요일 모임 전후가 아닌, 성찬식을 제외한 두 시간의 일요일 모임 일정 중에 진행된다. 교사 평의회 참석자들은 최근에 가르친 경험을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관련된 질문을 하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나눈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2015). 3쪽, “교사 평의회 모임” 참조)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에서는 지난 9월부터 교사 평의회를 진행해 왔다. 주일학교 회장단은 이 모임을 통해

교사들이 서로 배우고 간증을 키우며 더 좋은 교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아이디어 수집과 실질적인 개선

교문 와드의 교사 평의회에서,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소책자에 따라 토론하는 교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평의회 시간 동안 교실의 물리적 환경이나 영적인 환경의 조성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관해 이야기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한다. 교문 와드 복음 교리반 교사 박점현 자매는, “교사 평의회를 통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공과 시작 전 찬송가 음악을 들려주며 영을 초대하는 간단한 예처럼, 교사로 봉사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와 도움을 받았습니다.”라며 교사 평의회에서 얻은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 말한다.

개인적인 경험과 간증의 공유

하지만, 교사 평의회 논의는 단순히 개선점과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평의회 모임 동안, 교사로 봉사하며 얻은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다음은 교문 와드 대제사 그룹 지도자인 안광호 형제가 교사 평의회 모임 도중에 나눈 개인적인 경험이다. “반원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반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공과와 교사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간증이 반원들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도 2016년 6월부터 교사 평의회를 열고 있다.

유성 와드 주일학교 교사인 석찬영 형제는 교사 평의회에서 배운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교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가르치는 것인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 평의회에서는 와드 회원인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토론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영이 말해주는 것을 강하게 느끼곤 합니다.

교사 평의회는 부름을 수행하는 데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특히 교사로서 배우고 회개하는 개인적인 경험들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평의회: 교사 훈련 이상의 의미

교사 평의회가 지침에 따라 매달 열리면서, 교사들은 연속적으로

훈련될 기회를 얻고 있다. 기존에 단위 조직별로 빈도를 정해 운영되던 ‘교사 훈련 모임’과 지금 매달 진행되는 교사 평의회는 ‘평의회’라는 용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유성 와드 주일학교 회장인 김영창 형제는 교사 평의회가 교사 훈련 모임과 다른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존의 교사 훈련 모임이 배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교사 평의회는 폭넓은 내용을 토론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사들과 협의하며, 와드 상황에 맞게 해결 방향을 잡고 진행할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교문 와드 복음 원리반 교사인 조길자 자매도 교사 평의회를 통해 얻은 축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교사 평의회는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큰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교사 평의회에서 배운 것들이 구도자와 신회원이 많은 저희 복음 원리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더 커진 관심과 배려가 구도자를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는 축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교문 와드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백정훈 형제는 교사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 “교사 평의회에 참석할 때마다 교사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반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이를 통해 기술적으로나 영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성 와드 감독단 제2보좌인 이기영 형제는 교사 평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교사 평의회를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발전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구주의 방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교사 부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



베드로: 미래의 나, 과거의 나를 만나다

동대문 스테이크 음악제가 지난 12월 3일 저녁 6시, 동대문 와드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동대문 스테이크 음악제는 회원과 구도자를 포함하여, 관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뮤지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베드로: 미래의 나, 과거의 나를 만나다”가 이 뮤지컬의 제목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이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이 공연은 베드로의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플래시백 기법으로 그의 생각과 동기, 변화를 치밀하게 그려냈다.

하나의 뮤지컬을 완성하기 위해 스테이크 내 여러 회원의 노력이 함께했다. 대부분 전문 연기자가

연출자들이 아니었지만 수많은 연습과 연구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내레이션 장효성 형제, ‘과거의 베드로’ 역에 주현진 형제, ‘현재의 베드로’ 역에 강동연 형제, 요한 역에 윤다영 자매, 예수 그리스도 역에 양동훈 형제, 다비다 역에 박민정 자매, 야이로의 딸 역에 산들 클락 자매가 연기했다.

연기자와 스텝들의 호흡이 큰 호응을 얻으며, 뮤지컬은 관객의 큰 박수와 함께 그 막을 내렸다.

대본을 맡은 손효진 자매는,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제자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불완전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유일한 전문 연기자인 전시내 자매가

뮤지컬의 연출을 맡았다. 그는 이 공연이 회원과 구도자 모두에게 선교 사업의 역할을 했으며, 특히 이 시간의 감동이 자신의 신앙이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간증했다.

이 모임을 감리한 김현수 스테이크 회장은 “앞으로도 음악제에서 재능을 나누고 즐기며, 서로 사랑과 우정을 더 증진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한국 홍보 위원회 소식

전국 홍보 위원회 합동 송년 모임

지난 12월 11일 일요일 저녁, 홍보 위원회의 주최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전국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의 홍보 위원들이 모여 송년 모임을 열었다.

지역 칠십인 배동철 장로의 감리로, 홍보위원인 이원강 형제, 로빈슨 장로, 위원장인 김도균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홍보 담당 고등평의원인 유효상 형제가 홍보 위원회의 역할과 홍보 활동의 세부 방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11개 스테이크 및 지방부의 홍보 위원들은 함께 경험이나

자료의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상의하고 서로 홍보와 관련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배동철 장로는 이날 말씀을 통해, “홍보는 교회의 신권 사업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선교 사업과는 다르지만, 이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도록 하는 데 세상과 교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보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홍보 위원회에 말씀해주세요십시오.”라고 전했다. ■



지도자, 접견의 기술

지난 11월 25일, 광주 스테이크는 신권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가족 서비스와 협력하여 특별한 훈련 모임을 진행했다. 전문 상담사를 초청하여 상담의 원리와 기술에 대해 훈련한 것이다.

광주 스테이크 회장단은, "신권 지도자들이 접견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해가 생겨서 회원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회원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가족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이날 훈련을 진행한 서울 서 스테이크

조기준 형제는 가족 서비스에서 자원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훈련을 진행하면서 특히, 회원 간 갈등이 생겨 지도자를 찾는 경우와 이런 접견의 경우 지켜야 할 유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광주 스테이크 회장단의 정한 형제는, "상담 원리와 원칙, 특히 부정적인 언행이나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독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고 질문에 비해 질의응답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가족 서비스의 길윤석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신권 지도자들은 회원을 돌보는



사진: GETTY IMAGES BANK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주님의 자원이자 중요한 방편입니다. 지도자들이 회원들의 정서적인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접견할 때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대단히 큼니다. 가족 서비스에서 이런 훈련을 요청받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면 기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한국 성도의 소리 |

태풍 나리 속에서 얻은 배움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김병창 형제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임신했다. 여러 번 유산할 위험이 있었지만, 아내와

아이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도로 주님의 보호를 받았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의사 선생님은 가까운 시일 내 입원하길 권유했다. 이 권유를 받은 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기도하며 입원 시기에 대해 주님께 여쭙었다.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당장 입원하라"는 영의 음성을 들었다. 아내와 나는 이 응답에 곧바로 순종했고, 바로 그날, 2007년 9월 15일 토요일 오후에 병원에 입원했다.

그다음 날인 9월 16일, 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강타했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듯이, 사상 초유의 강력한 태풍이었다. 단 하루 동안, 전깃줄이 끊어지고 도로가 침수되었으며, 물에 휩쓸린 차들이 겹겹이 쌓였다. 수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 시각, 아내는 병원에서 진통을 느꼈다. 자연 분만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판단하에 아내는 결국 수술을 통해 아이를 낳았다. 마침내 아이를 만났고, 아내와 아이 모두 무사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다.

이후 의사 선생님께서 "태풍 때문에 전기가 나가서 비상 전기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직후 비상 전기마저 끊겨 버렸다"라는 가슴 떨리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또한 다른 회원에게, "태풍 나리 때 119에 전화를 걸어도 이미 통화 중이거나, 전화가 연결되더라도 다른

여러 긴급 상황으로 119대원들이 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도 들었다.

9월 15일, 영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영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는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2011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저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계시의 영을 구하고 활용한다면 "주의 빛 가운데 행하게"(이사야 2:5; 니파이후서 12:5)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고 크게 하며 이해력을 넓혀 주고(앨마서 5:7; 앨마서 32:28 참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인도하고 보호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영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나와 내 가족이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경험을 통해 얻은 이 배움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

치유와 축복: 고통 속에 얻은 교훈

서울 스테이크 녹빈 와드 정다운 자매



2009년 4월, 고3이었던 나는 등푼길에 넘어지면서 목이 계단에 강하게 부딪혔다.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었고, 급히 벽을 두드려 다른 학생이 선생님을 불러오도록 했다. 말은커녕 숨조차 쉴 수 없었던 나는 “119, 기도, 82”라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서 선생님께 상황을 알렸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하고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나는 갖가지 호스를 입에 넣은 채 응급실에 누워있었다. 기도가 폐쇄되었던 것이다. 수술을 집도할 교수가 도착할 때까지 꼼짝없이 고통을 겪었다. 성공 확률이 낮은 수술이었지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한시라도 빨리 수술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술이 끝나자, 나는 다시 삶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지만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의사가 약속했던 4주의 회복 기간이 지났지만, 기도엔 협착이 생겼으며 곧 항생제 부작용과 혈흉의 결과로 생긴 폐렴 때문에 고열이 계속됐다. 2시간마다 해열제를 맞아야 했고, 입으로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이 코에 줄을 넣어 유동식을 먹었다. 시간이 지체되고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졌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의문과 분노가 치밀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난 모두에게 버림받을 거라 생각했고 절망 속에서 비참하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우리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또 당시 감독님 부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다. 학교

선생님도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셨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내가 아픈 것도 허락하셨지만 내가 아플 때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서웠던 시간이 나를 더 강하고 겸손하게 했으며, 나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 시간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201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제일회장단의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역경을 겪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고, 유혹을 받으며, 실수를 할 것입니다. 모든 여주인공이 배우는 교훈, 즉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강해지고 성장한다는 교훈을 여러분도 직접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고통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아픔에서 위로받고 치유되며, 축복을 받을 것이다. ■

2017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남성이 형에게.

“사랑의 편지” 시리즈는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는 편지글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격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담고 있다. 사랑의 편지는 2017년 한 해 동안 연재된다. 이번 2월호에 실리는 두 가지 편지는, 각기 다른 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하는 형 조남성 형제와 동생 조남준 형제가 서로에게 보내는 사랑과 감사, 격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담겨 있다.

중랑 와드 감독, 동생 조남준 형제의 편지

사랑하는 남성이 형에게.

형이 유학을 갔을 때도, 선교 사업을 나갔을 때도 편지를 써 본 기억이 별로 없다. 형에게 내가 조언을 해 주거나

격려해 줄 만한 것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편지로 형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감사야.’

형이 사초 와드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 축하의 마음보다는 감독 부름으로 혹시나 형과 형의 가족들이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 외국에서 오래 지내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들이 적은 새로운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사랑의 편지: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내는 간증과 사랑의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선교사와 주고 받은 편지, 사랑과 사과를 표현하는 편지, 특별한 기념일에 보내는 (간증이 포함된) 편지글 등이 포함됩니다.

<기사 기고 및 제보 방법>
 이메일: kah_liahona@daum.net
 전화: 02)2232-1441 ("리아호나 지역 소식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지역 소식에 소식을 제보하고 싶어요" 등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 걱정이 너무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형은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한번도 힘들거나 어렵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 오히려 봉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로부터 사랑받고 열심히 봉사하며 행복해 보이는 형과 형의 가족을 보게 되었어.

이후 내가 동대문 스테이크 회장님께 중랑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받는 것에 대해 들었을 때, 나는 오래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어. 그렇게 용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형의 모범과, 감독으로 봉사하며 받았던 축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 감독으로 봉사하며 형의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고,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동안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형은 언제나 좋은 친구면서 선배였어. 특히 내가 청소년이었던 시절, 세미나리 교사이자 청남 지도자였던 형에게,

신앙, 소망, 사랑, 봉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 항상 올바르게 길을 걷는 형의 뒤를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 내겐 큰 축복이었어.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때로 어렵거나 힘든 일도 있었어. 그럴 때마다 형에게 배웠던 것들, 형과 함께했던 경험들, 무엇보다 같은 부름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형이 준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었어. 물론 주님의 인도와, 중랑 와드 회원들의 지지와 사랑이 더해졌기에 감독으로 부름받고 지난 1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

나는 청소년, 형은 고문으로 참석했던 청소년 대회의 주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다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모사이사서 2:17 참조)"이라는 내용을 늘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칼 비 쿡 장로님이 '봉사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것을 형과 나누고 싶어. '교회 회원으로서 갖는 가장 커다란 축복 중 하나는 봉사하는 기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알아 가고 우리의 신앙이 커진다고 하셨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삶이 더 만족스러워지고, 우리의 사랑이 자라고, 봉사하려는 열망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셨어. "봉사란 우리가 해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 이 지상에서 참아내야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의 삶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함께 봉사할 수 있어 고마워. 늘 건강하길.
 남준이가.

서초 와드 감독, 형 조남성 형제의 편지
 사랑하는 남준아.

네 편지를 받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다. 부족한 게 많은 형인데, 항상 형 대접을 해주고 존중해주어서 고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이 주신 부름을 받을 만큼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돌이켜 보면 주님은 부름을 통해서 항상 나를 지켜 주셨고, 또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이 부름을 통해 너와 너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성장시켜주시실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함과 기쁨을 느꼈다.

10여 년 전 내가 처음 지부 회장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머님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셨다. “지부 회장이나 감독이 되면,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것이다.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 세세히 회원들을 보살피야 한다.” 이 가르침대로, 지난 2년간 미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이 없는지 나를 낮추며 살피려고 노력해 왔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나와 내 가족의 작은 신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동안 미처 몰랐던 많은 분들의 숨은 선행과 아름다운 모범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구나. 네가 열심히 부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봉사의 기회가 너와 너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있을지를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사함을 느낀다.

내가 선교 사업을 나갔을 때 아버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너와 나누고 싶다. “우리 집에는 네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특별한 곳이 있다.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그 자리를 채워주길 바란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분의 마음에 남준이 네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특별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라.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자. 나는 우리가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그들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특별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 복음이 참되기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땀과 눈물 그 어느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가 충실하게 생활하고 주어진 부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한다.

너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또 같이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하다.

사랑하는 형이.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자매 4명 / 장로 2명



김영신 자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화양 와드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선교부



김정민 자매
부산 스테이크
수정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윤지영 자매
경기 스테이크
송파 와드
하와이 호놀룰루
선교부



전다정 자매
부산 스테이크
광안 와드
캐나다 몬트리올
선교부



최해빈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종량 와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선교부



한창윤 장로
대구 스테이크
수성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dschurchkorea/